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송명신 Daniel Sewell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국	배중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중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LENT

사순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

3.19.2023

믿음으로 사는 인생 (6)

1부 9 AM 2부 11:00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Lent (4)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44:22
찬송	찬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봉헌찬송	찬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Romans 4:16-25, NT p 244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인생 (6)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Life of Believers (6)
*결단의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성경은 이 음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 구약의 음부, 스올

‘음부’는 구약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예전에 쓰던 ‘개역’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어떤 번역 원칙 때문인지 모르나, 지금 쓰는 성경(개역개정)에는 다 ‘스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 구약의 ‘스올’의 의미를 시편 한 구절을 통해 파악해봅시다. 116:3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히브리 말, 특히 시에서는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바꾸어서 씁니다. 위의 시에서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올’은 ‘사망’과 비슷한 뜻, 혹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뜻합니다

2) 요나의 스올

“도망가는 선지자”로 유명한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이 ‘스올’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 배에다 정확히 때리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요나서 2:2)"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무덤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아니면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스올도 곧 무덤이었습니다.

(2) 신약의 ‘음부’

신약에서 이 음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번 음부가 나오는데, 네 번 다 ‘사망’과 함께 나옵니다. 세 번은 ‘사망과 음부’로 나오고 나머지 한 번, 계시록 6:8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을 탄 기사()가 말을 몰아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기사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를 ‘음부’가 따라 갑니다. 뭐겠습니까? 사망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무덤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내린 결론으로 구약의 익숙지 않은 언어 ‘스올’의 뜻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116:3의 스올의 고통이란 바로 ‘무덤의 고통’입니다.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3)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0 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마태복음 27:46]

3.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형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서야할 죽음 앞에서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 죽을 지경이 되시고, 겁에 질려 숨이 멎을 거 같은 심정이 됩니다.

1) 마가복음 14:33-34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즉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대신 죽는 일을 피하려 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

리와 달리 하나님께 받는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49문답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떨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받아내야 할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은 온 몸으로 받아내셔야 했기에 그렇게 무서워 하셨습니다.

2) 마태복음 27:46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말 버리셨을까요?

아니라구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저렇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계십니다.

<제11과 음부에 내려가심> 사도행전 2:24

1. 성경의 '음부'

우리의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리는 사람의 견해이며 주장일 뿐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Lent (4)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다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6), 롬 4:16-25

< 본문 속으로 >

1..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요? (16절)

2.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16절)

3.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무엇인가요? (17절)

4. 아브라함은 어떤 중에도 바라고 믿었나요? (18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내 손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담겨서, 그 은혜가 주권적으로 날 통치하시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내 빈손을 고개 숙여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손은 세월지나가면 갈수록, 더 빈손이 되어가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담겨지고 있는지, 행여 자꾸 다른 것들만 가득 담겨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2.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인생'으로서, 진정한 실상이신 오직 예수 소망만을 바라고 믿으면서, 때론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서 오늘을 움직여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나는 대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보이는 증거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3/19		3/26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교회 안내	강석우 (문경자) 집사	교회 안내	김귀자 집사
설교 번역	김예람 자매	설교 번역	이화니 자매
애찬 담당	칠레 구역	애찬 담당	모로코 구역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구역 (3월)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구역 (3월)

향기로운 예물 3/12/2023

주일	\$559	구역선교	\$70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4,380	건축	\$50	예배부 키보드	\$500
감사	\$470	첫열매	\$69.55		
선교	\$20				
현금총액				\$6,748.55	

현금 외 수입금

합계	\$0
입금총액	\$6,748.55

교회현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 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주일 예배 안내위원

오늘부터 다시 주일 예배 안내위원을 온 성도님이 함께 동참하여 섬기게 됩니다. 교회 주소록 순서대로 예배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장기 결석 성도님들 제외한 명단이 매 주 주보에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 힘드신 분들은 예배부장 (박은실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내수칙은 요람 P 31 참조)

소망학교 사진 전시회

오는 4월 소망학교 주체로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본인의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이신웅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는 4월 18(화)-23(주)일 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마감: 3월 26일 주일)

1/4분기 제직회

다음 주일(3/26) 식사 교제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기도구역** 요르단 구역 (황규식.이선영 구역장)과 설총호.전경원 선교사님 위해서
- 기도가정** 손인자 집사님 가정 위해서

교회행사

2월 5일 (주)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3월 26일 (주)
 1/4분기 제직회